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창세기 13:5-13

믿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는 늘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제3의 가능성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뽕엘과 아이 사이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조카 롯도 양과 소가 많아지게 되자 그들이 머문 땅이 좁아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은 좁은데, 양들과 소들의 숫자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두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들의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싸운 것이지요.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데리고 나온 유일한 혈육인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짐승들에게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했던 시절에는 의리와 순정에 살던 친척들과 친구들이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의 이해관계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얼굴 붉히는 그런 현장을 보셨습니까? 가난했을 때에는 열심히 신앙 생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가난했을 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착했던 사람이 돈이 생기자 마음이 병들고,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사람들의 삶을 타락시키고, 형제애를 깨뜨리고, 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아브라함 집안과 롯의 집안도 바로 이런 ‘재산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실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때문에 두 집안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첫째,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롯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8절에 “우리는 서로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러니 네 가축 떼를 치는 목자들과 내 가축 떼를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 갑니다. 사실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지금은 고인이 된 이규태라는 사람이 “한국인이 버려야 할 버릇”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서 그는 한국인이 현대화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미덕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관용의/용서의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현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이 관용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좁은 땅 덩어리에서 치열한 경쟁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 자기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결 대신에 대화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대결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롯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과 대결하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를 찾아와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바로 7 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땅이 좁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 땅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울 때 그들이 이 싸움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행동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소리치는 메시지에 감동 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 용서와 화해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롯의 선택입니다. 롯은 여전히 믿음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쪽이든 네가 원하는 곳을 고르라고 하자 그는 요단 강 쪽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가축을 치기에는 너무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 없이 요단강 쪽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설명을 덧붙이기를 롯의 눈에 이 요단 들녘은 여호와와 동산과 같이 매우 기름져 보였고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가축을 먹이기 좋은 곳,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13 절을 보면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 정도로 못된 짓만을 일삼았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악한 땅, 멸망 받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최악의 도성, 멸망 받을 곳이라고 말하는데 롯은 그 땅을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사람 롯은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재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롯의 모습은 물질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롯과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단 강 쪽은 물이 많아 비옥하구나, 저 곳에 가면 가축을 키우기에 좋겠구나, 저 회사는 월급을 많이 준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좋다. 월급은 적어도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회사로 가야지. 좋은 조건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롯의 선택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롯은 당연히 성공해야 합니다. ‘롯은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은 계속 어려움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당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4 장에 보면 갑자기 소돔성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는 포로가 되고 가진 것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갈 수 있습니다. 또 19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게 됩니다. 이 때 롯은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도중에 아내까지 잃고 맙니다. 가진 재산 다 날렸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광야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환경도, 여건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본문 14 절-17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져 살게 된 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셨다. '아브람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찬찬히 둘러보아라. 내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땅을 내가 모두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앞으로 영원토록 이 땅이 너희의 차지라 될 것이다. 또 내가 네 후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겠다. 땅의 티끌만큼이나 많이 할 것이다. 람이 땅의 티끌을 모두 셀 수 있다면 네 후손이 얼마나 되는지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온 땅을 사방으로 왔다갔다 해보아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네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가 믿음으로 살겠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익을 양보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재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그리고 재산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시오.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양보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